



로봇 시대, 인간의 일 개정증보 2판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할 이들을 위한 안내서

구본권 지음

2025년 11월 10일 출간 | 판형 147*215 | 416쪽 | 19,800원 | 분야 인문>인문일반 | ISBN 979-11-6774-248-3 03300

책 소개

인공지능 로봇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필독서, AI 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정증보 2판 출간!

‘인공지능 로봇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탁월한 교양서’라는 찬사를 받으며 인공지능 시대의 필독서로 자리 잡은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이 두 번째 개정증보판으로 독자들을 만난다. 2015년 초판 출간 후 2020년 개정증보판에서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라 여겼던 예술과 정치에 관한 질문을 추가한 데 이어, 이번 개정증보 2판에서는 우리 사회 전반을 뒤흔드는 생성형 AI에 관한 질문을 덧붙였다. 생성형 AI가 초급 사무직의 절반 이상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지금, 인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더 많은 영역을 인공지능에 위임하는 세상이 될 때, 그럼에도 살아남을 인간의 일은 무엇일까? 디지털 인문학자이자 IT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이 책에서, 갈수록 똑똑해지는 도구와 지혜롭게 관계 맺고,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도 영원히 인간의 일로 남을 문제들을 고민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아찔한 속도로 발달해온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삶을 온전히 대체할 것인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새롭게 더해진 또 하나의 질문

2015년 처음 출간된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의 시대인 인공지능 로봇 시대로 진입한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과 고민할 문제들을 던지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탁월한 책’이라는 독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중·고등 교과서에 수록되고 진로 탐색을 위한 필독서로 자리 잡았으며, 여러 학교와 도서관, 지역 등에서 추천도서로 선정되어 15만 명 가까운 독자들을 만났다.

《로봇 시대, 인간의 일》 개정증보 2판에서는 2020년 개정증보판 출간 이후 5년간의 변화와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우리 시대 대표적인 디지털 인문학자이자 IT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저자 구분권은 “처음 개정판 작업을 했던 2016~202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보다 개정 2판 준비 기간인 2021~2025년에 일어난 변화가 훨씬 크다”고 개정2판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2022년 오픈AI가 개발한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출현이 자리한다. 무엇이건 지시하면 곧바로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마지막까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라 여겼던 창의성의 자리마저 넘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목도하며 저자가 새롭게 던진 질문이 이번 개정증보 2판에 추가된 내용이다. 12장 <생성형 인공지능은 창의성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가 그것이다.

생성형 AI 시대에도 살아남을 인간의 일은 무엇인가? 더욱 절실해진 로봇 시대를 살아가는 힘

과거의 뛰어난 만화가들은 오랜 세월 같고닮은 자신만의 그림 스타일과 글씨체를 가지고 있었다.

그림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상당 기간 유명 작가 밑에서 견습생 과정을 거친 후라야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인정받을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던 만화 시장은 기술과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웹툰’으로 흐름이 바뀌었고, 실력 있는 작가들이 뛰어들어 경쟁하면서 웹툰 생태계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인공지능 등장 이후 다양한 인공지능 창작 도구가 제공되면서, 만화가가 되는 경로는 완전히 달라졌다. 도구들의 역할은 과거의 견습생 수준을 넘어서고, 그림을 대신 그리거나 채색을 해주는 것은 물론 플롯과 시나리오도 금세 완성해준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해당 분야에 특별한 재능이나 기량을 갖추지 못해도 손쉽게 창작의 세계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챗GPT 등장 이후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교사가 아무리 참신한 과제를 내줘도 학생들이 챗GPT에게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게 현실이다. 학생들의 무분별한 챗GPT 사용이 학교교육의 본질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일자, 미국 뉴욕시 교육청은 한때 학교에서의 챗GPT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인공지능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창의성의 시대를 열어주는 마법의 지팡이로 추앙받는 반면, 누군가에게는 기술에 의존하며 그저 그런 결과물만 양산하게 하는 창의성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현실이다.

이처럼 생성형 인공지능의 출현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이제 기계는 특이점을 넘어설 것인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 기계 시대에 가장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로봇 시대, 인간의 일》 개정증보 2판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인공지능 기술이 맹렬한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지금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되묻는다. 저자는 “인공지능 기술은 그동안 아찔한 속도로 발달해왔지만, 기존의 질문들 가운데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 사실이 오히려 우리를 안도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리고 독자들이 이 책과 함께 과거에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질문들을 만들어내며 ‘호모 파베르(도구적 인간)’인 우리가 갈수록 똑똑하고 편리해지는 도구(인공지능과 로봇)와 지혜롭게 관계 맺기를, 독자들이 스스로 자신만의 질문을 만들어내 로봇 시대를 살아가는 힘으로 삼을 것을 주문한다.

저자 소개

구본권

우리 시대 대표적인 디지털 인문학자.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박사학위(언론학)를 받았으며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를 지냈다. 〈한겨레〉 기자로 일했고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디지털 기술의 빛과 그늘을 함께 보도해온 IT 전문 저널리스트로, 기술과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방안을 궁리하며 글 쓰고 강의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신문과 방송〉, 〈미디어 리터러시〉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다. 《메타인지의 힘》, 《당신을 공유하시겠습니까?》, 《공부의 미래》, 《전길남, 연결의 탄생》, 《뉴스, 믿어도 될까?》, 《뉴스를 보는 눈》 등을 썼고, 《잊혀질 권리》, 《페이스북을 떠나 진짜 세상을 만나다》를 우리말로 옮겼다.

책 속에서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질문을 불러왔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처음 나왔을 때 단순한 작업은 기계에 맡기더라도 창의적인 일만은 사람의 영역이 될 것이라고 한동안 강

조하고 교육해왔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데 특화된 기술이어서, 무엇이건 지시하면 곧바로 생성해낸다. 인간이 ‘창의성 구현’이라고 일컬어온 활동을 거침없이 수행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질문이 던져졌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창의성을 돕는 도구인가, 아니면 인간의 창의성을 훼손하는 도구인가?” 개정 2판에 추가하는 13번째 질문이다.

-12쪽,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충격적 변화 앞에서〉

2020년 2월 아카데미영화제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성공에도 번역의 공로가 숨어 있다. 영어 자막번역가 달시 파켓은 한국말과 한국 고유의 문화를 다른 언어와 문화권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섬세하고 정확한 번역을 선보여 외국 영화팬들도 〈기생충〉을 호평하게 만들었다. 딸이 포토숍을 이용해 가짜 졸업장을 만든 솜씨에 반한 기택(송강호 분)이 “야...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라고 말하는 장면을 영어 자막에선 서울대를 ‘옥스퍼드대’로 옮겼다. 세계인들에게 명문대의 상징으로 이해될 가장 적합한 표현을 번역가가 고심해 골라낸 창의적 결과다.

-74쪽, 〈자동 번역 시대,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

2018년 10월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는 최초로 인공지능이 창작한 그림이 출품됐다. 프랑스의 연구자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화가 ‘오비어스’가 그린 초상화 〈에드몽 드 벨라미〉인데 43만 2000달러에 낙찰됐다. 애초 예상 낙찰가는 1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실제 경매에선 수집가들이 경쟁적으로 입찰가를 올리면서 40배 넘는 값에 낙찰이 이뤄졌다. ...이날 크리스티 경매엔 앤디 워홀의 작품도 출품돼 대조를 이뤘다. 워홀 작품의 낙찰가는 7만 5000달러였다.

-166쪽, 〈예술적 창의성은 과연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일까〉

인간 심판은 경기 내내 집중력과 판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다. 체조, 피겨스케이팅, 음악 콩쿠르처럼 예술과 기술 성취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종목은 판정의 편파성과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복수의 심판이 참여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평균하는 방식으로 판정하는 구조다. 기계는 지치지 않고, 타고난 애국심과 편견도 없다. 로봇 심판은 인간 심판의 편파성, 비일관성의 시비를 잠재우는 공정한 평가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로봇 심판은 스포츠 분야를 넘어 법정과 정치판에도 진입할 수 있을까?

- 314쪽, 〈공정한 판결, 로봇에게 의지해야 할까〉

차례

개정증보2판 서문: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충격적 변화 앞에서

개정판 서문: 알파고가 던진 새로운 질문들

프롤로그: ‘멋진 신세계’를 불러올 로봇 시대가 열린다

Chapter 1 알고리즘 윤리학: 무인자동차의 등장,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

스스로 운전하는 차들의 경쟁 / 땅으로 내려온 행성 탐사 기술 /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 / 우리는 운전대를 로봇에게 넘길 수 있을까 / 자율주행차의 사고, 누가 책임질까 / 누구를 죽일

것인가 / 도로에서 삶으로 들어온 자동화

Chapter 2 언어의 문화사: 자동 번역 시대,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

인류의 꿈, 바벨 피시의 등장 / 에니그마에서 인공지능까지, 기계 번역의 역사 / 인간 번역 VS 기계 번역 / ‘중국어 방’ 사고실험 / 인간의 본능이 로봇에겐 난제? / 언어 장벽이 사라지는 시대에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 / 외뇌 시대, 언어 능력도 아웃소싱할 수 있을까

Chapter 3 지식의 사회학: 지식이 공유되는 사회,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될까

대학 졸업장이 한낱 종잇장이 되다 / 교실을 넘어서 새로운 교육 / 한계비용 제로 사회의 역설 / 인류 지식의 보고, 백과전서에서 위키피디아로 / 지식 도구의 진화 / 정보의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지식 반감기 / 지적 존재가 되는 길

Chapter 4 일자리의 경제학: 제2의 기계 시대, 내 직업은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 번의 항공 격추 사고가 알려준 것 / 구조적 실업 / 지식산업을 장악한 제2의 기계 시대 / 러다이트 운동은 무용했는가 / 잘못된 예측된 미래 / 나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 평생직업이 사라진 시대, 어떻게 일하며 살아야 할까

Chapter 5 인공지능 예술: 예술적 창의성은 과연 인간만의 경쟁력일까

작곡하고 그림 그리고 글 쓰는 인공지능 / 예술을 향한 질문 / 도전받는 예술의 본질 / 인공지능 예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 복제본에 없는 진품의 고유한 경험 ‘아우라’

Chapter 6 여가의 인문학: 노동은 로봇이, 우리에게겐 저녁 있는 삶이 열릴까

노동은 기계가, 사람은 휴식을? / 여가란 무엇인가 / 역설적인 타임 푸어 시대 / 자유로운 시간에 자유롭기 위하여

Chapter 7 관계의 심리학: 감정을 지닌 휴머노이드, 로봇과의 연애 시대가 온다?

로봇에 감정을 이식하다 / 로봇과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 반러로봇의 합동 장례식 / 로봇은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가 / 로봇 개를 발길질하는 것은 잔인한가 / 인간에게 감정이란

Chapter 8 인공지능 과학: 인공지능의 특이점, 로봇은 과연 인간을 위협하게 될까

컴퓨터, 체스의 신을 꺾다 / 인공지능 연구의 밑물과 썰물 / 인간의 마지막 발명품 / 의식 없는 지능의 진화 / 아시모프의 로봇 3+1 원칙 / 우리가 직면한 또 다른 물음

Chapter 9 호기심의 인류학: 생각하는 기계에 대해 인간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치명적 오류가 생존의 이유 / ‘왜?’를 억압해온 역사 / 질문이 필요 없는 미래 / 인류가 성취해낸 것들의 근원 / 결핍을 발견해내야 하는 시대

Chapter 10 인공지능 판사: 공정한 판결, 로봇 판사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할까

판정 시비 없는 ‘로봇 심판’ / 초당 10억 장 판례 읽는 ‘로봇 변호사’ / 재범 가능성 판단하는 ‘인공지능 재판관’ / 알고리즘도 ‘차별’과 ‘편견’ 가득 / 효율적이지만 설명할 수 없는 알고리즘 / “누가 해도 지금 정치인보다 나을 것”이라고? / 자유 추구의 역설

Chapter 11 망각의 철학: 망각 없는 세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기계 기억의 진화 / 잊힐 권리 / 게이트키퍼식 두뇌 / 망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 아웃소싱할 수 없는 기억의 조건

Chapter 12 대량 창의성 시대: 생성 인공지능은 창의성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생성 인공지능이 불러온 두 가지 풍경 / ‘허용이냐 차단이냐’ 딜레마에 빠진 학교교육 / 생성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징 / 창의성 논의에 떨어진 생성 인공지능 폭탄 / ‘창의성의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일어날 것인가 / 대량생산 시대에서 대량 창의성 시대로 / 창작물보다 중요한 것 / 인공지능으로 인한 미래 창의성의 변화

Chapter 13 디지털 문법: 우리가 로봇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가

미래의 문맹자 / 블랙박스를 해독하는 코드 리터러시 / 이르 요론트 부족의 비극 / 신적인 인간, 인간적인 인간

추천의 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사회를 압도하는 이 시점에 로봇으로 둘러싸인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책이다.

-‘2017 구미시 올해의 책’ 선정의 말

로봇기술의 과거,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의 포지셔닝을 고민하며 반드시 던져보아야 할 질문들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와 천착이 녹아 있어 흥미로우면서도 진지함을 잃지 않는 역작이다.

-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장덕현 부산대 교수)

새로운 로봇이 등장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도덕적, 철학적인 문제와 만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런 문제를 독자에게 알기 쉽게 전달해주고 있다.

-책따세 추천도서 (조영수 창문여중 교사)

이 책은 기술의 발달이 불러올 새로운 차원의 인문학적 과제를 제시한다. 인공지능 로봇 기술은 편리함을 가져오지만, 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를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고를 해야 한다.

-중앙대학교 지역인문학센터 추천도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 속에서 인간이 기계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인간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에 대한 안내서가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추천도서(김영찬 광성중 교사)

불안하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차분하게 준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이형열(과학책 읽는 보통 사람들 운영자)